

나는 겸손의 예수 - 교만하지마라

충남 아산 화목교회 주온빛

2009년 10월 4일 주일새벽 4시51분

예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섭리사 만큼은 제발 그 악한 교만에서 벗어나
겸손해져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며 주신 말씀입니다.

나는 겸손의 예수니라

교만만큼은 버려라

교만만큼은 불태워라

교만은 나와 상관없느니라

나는 너희의 작고 낮음을 사랑한다.

나는 너희의 겸손함을 사랑한다.

나는 너희의 구부러진 두 무릎을 축복한다.

나는 너희의 온화한 눈빛을 사랑하고

나는 너희의 은혜 가득한 행실을 사랑한다.

나는 잘남을 멀리하고

나는 높음을 멀리하고

나는 그릇된 입술을 멀리하니

나는 겸손의 예수니라

나와 함께할 자

믿음도 소망도 사랑도

실천도 의로움도 선함도

모두 겸손으로 이 지구촌 뒤덮는 구나

나는 지구촌을 위해 목숨 바치는 자

그런 자를 사랑하는 겸손의 왕 예수니라